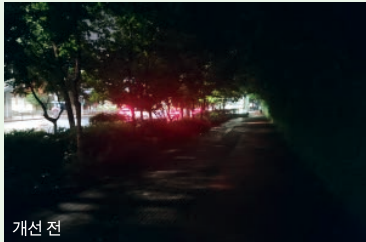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위한 경관개선사업 추진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2024.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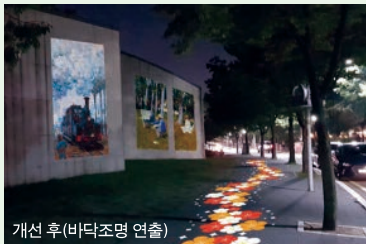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2024.1.29.



개선 전



개선 후(FUN 디자인 가로등)



개선 후(바닥조명 연출)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융합한
편(FUN) 디자인 콘셉트 가로등

출처: 서울시. (2024). 서울시, 가로등 100% LED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만든다. 1월 22일 보도자료.

서울시, LED 조명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

서울시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로조명시설 개선' 작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총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년 넘은 노후 가로등과 조명시설을 전면 개량하고, 2025년까지 모든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교통량이 줄어드는 야간에 가로등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밝기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 실시간 원격점검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등에 CCTV와 무선인터넷 등 각종 시설물을 융합하여 도시정보를 수집하고, 시민 안전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야간경관에 재미를 주는 편(FUN)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강 교량의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조명시설이 노후한 원효대교와 가양대교의 단색 경관조명을 올해 중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시내 '야간경관 축'을 고려하여 지역·노선별 가로등의 광원 색온도를 다르게 설치하고 각 지점에 어울리는 색상과 밝기로 조성하는 등 안전뿐 아니라 도시 매력 요소로 다양한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시경관 조성 위해 경관개선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관개선사업은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 ▲간판 개선사업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사업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먼저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접목하는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은 올해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주·통영·고성 등지에 위치한 공공시설물 3곳의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간판으로 개선하는 간판 개선사업은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65개 간판을 정비하며, 관리자가 없는 간판 철거를 지원하는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창원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통해 산책로 확·포장장과 벽화 조성, 조형물 설치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